

# 광주 수출 3년만에 100억弗 넘나

### 가전·자동차 호조 ... 최대 110억달러도 가능

### 미·유럽 경기부양책 ... 지역내 소비 더 늘듯

지난 200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후 3년 만에 광주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율 변수가 있지만 올 초 유럽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가전·자동차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최대 110억 달러도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7일 "지난 9월 말 현재 수출액이 81억4000만 달러로,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2007년도에 기록한 101억4000만 달러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역대 최대 수출 1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1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지역 수출촉진 전략 회의'를 열고 기업 및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역 수출의 80%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가전제품·광·반도체분야 등 주요 산업별 수출관련 애로·건의사항과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산업을 방문부품을 생산하는 DK산업(주) 김정배 대표는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 관리 실무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남도금형 오기중 대표는 "해외시장을 직접 조사중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수출액은 지난 2007년 101억4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2008년 94억1000만 달러, 2009년 88억8000만 달러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등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소비가 늘어 지역내 생산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며 "환율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내년 中企 기술개발사업 1조5천억 쏜다

### 유망 기술 적극 개발 장려 ... 올해보다 3.9%늘려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관련 사업 중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다.

7일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보다 3.9% 늘어난 1조5천331억원을 내년 사업 운용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산업기술 지원'으로, 6588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산업진흥 고내 생산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며 "환율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올해도 12.1%(681억원) 많은 예산을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들이 미래 산도

를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상당 부분이 쓰인다.

또 정부 등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신제품 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 등도 중기청이 예산을 할애했다.

중소기업이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연합뉴스

# 상위 10%가 종부세 86% 납부

### 고액 부동산 대규모 보유 여파 ... 빈부격차 심화

일명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도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80% 이상을 낼 정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21만2600명의 신고세액 10분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2만1260명)가 전체 종부세액의 96.76%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2만1260명)의 종부세액은 상위 10%의 1382분의 1인 6억원에 불과했다. 하위 50%의 신고세액을 다 합해도 전체 종부세액의 2.5%(242억원)에 그쳤다.

이는 상위 10%가 고액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3.7%(6426억원 중 6021억원)였다. 2006년 77.7%(1조7180억원 중 1조3354억원), 2007년 70.8%(2조7671억원 중 1조9599억원)로 낮아지다가 2008년 77.2%(2조3280억원 중 1조7983억원), 2009년 85.7%로 다시 높아졌다. 종부세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서울지역 종부세 신고액은 5810억원으로 전체의 60.0%

였고 경기·인천·강원 지역이 2620억원으로 27.1%를 차지, 수도권 종부세가 전체의 8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수해탈 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내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내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등 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14 15 22 23 44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703,832,500	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5,732,536	35
3	5개 숫자 일치 1,598,885	1,220
4	4개 숫자 일치 50,000	58,726
5	3개 숫자 일치 5,000	982,817

코스피지수	1,938.96 (-3.54)
코스닥지수	528.66 (-2.87)
금리 (국고채 3년)	3.60% (+0.10)
원·달러 환율	1,107.30원 (-0.20)

\*수치는 5일 기준 1주전과 비교

# 기아차 노조원 해외견학

### 내년까지 500명 중국 현지공장 시찰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의 해외견학이 4년 만에 재개됐다. (사진)

기아차는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5차례, 내년 4월까지 7차례 등 총 12차례에 걸쳐 500명의 노조원들을 3박4일간 중국에 보내 현지 공장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기아차의 중국합작법인 동펑웨더기아(東風悅達起亞) 생산공장과 난징의 판매점을 견학한다. 기아차 노조원의 해외견학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2007년부터 중단됐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젊어진 대기업 임원

### 100대 기업 6116명 중 절반이 '40대 이하'

대기업 경영진의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40대 이하의 젊은 임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나이 많은 사람'을 특징해 해신 대상으로 언급, 연말 임원 인사철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주목된다.

7일 재발달닷컴이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매출 100대 기업의 6월 말 현재 재직 임원현황(사외이사 제외)을 조사한 결과, 임원 수는 6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신규 임원은 1388명, 퇴직 임원은 986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5714명보다 402명이 늘었다.

통상 대기업 임원 인사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져 6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대 이하 임원이 크게 늘면서 임원 평균 나이가

지난해 52.3세에서 올해 50.9세로 1.4세가 낮아졌다. 이로써 머지않아 다가올 대기업 임원 평균 연령 '50대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 임원에 오른 1388명 가운데 40대 임원이 732명, 30대 이하 임원이 17명으로 나타나 40대 이하 '젊은 임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올해 퇴직 임원 중 40대(186명)와 30대 이하(4명)가 190명임을 감안하면 40대 이하 젊은 임원은 지난해보다 559명이 늘었으며, 이는 기업별로 평균 6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전체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대 임원이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37%로, 30대 이하 임원이 0.6%에서 0.8%로 커졌다.

/연합뉴스

# 골프채·외제 자동차 수입 급증

### 주요 백화점 등 명품 매출 20~50% 증가

올해 들어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며 고급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있다.

경기에 민감한 주요 백화점의 명품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완연하게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골프채와 고급 자동차, 위스키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고급 내구재 소비재인 외제 자동차는 지난해 경기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수입이 24.5% 감소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51.7%나 늘었다. 9월까지 자동차 수입액만 25억8005만7000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

(24억8959만600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경기과 직결되는 위스키 수입도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위스키 수입은 전년 대비 24.8% 감소했다.

골프채 수입도 크게 늘어 9월까지 수입액 2억2614만달러, 증가율은 29.0%에 달한다. 화장품과 의류 등 고급 기호 제품 수입도 급증했다. 9월까지 비디오 카메라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나 증가했다.

주요 백화점의 명품 매출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롯데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은 동월 대비 24.4% 증가했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명품 매출도 각각 21.0%, 25.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전국 시도지사·지방 상공계

# "임시투자 세액공제 존속해달라"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광역단체장과 지방 상공계 등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며 한걸음이 적용기간 연장 및 현행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제23차 전국·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석 단체장들은 임투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세액공제 적용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일정률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제도로, 1982년

도입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청주시는 최근 "지속적인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상승과 성장 기반 확충,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사위,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에게 보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연장을 건의했고 울산 상의도 작년부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터전국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코카콜라, 해태제과, 금강아파트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가민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출**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역	영역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역	영역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